"우리는 아우슈비츠를 이해할 수 있을까?
- 애도(mourning)의 가능성에 대한 단상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아우슈비츠를 이해할 수 없다.
아우슈비츠는 지옥이었다. (Lotte S., 1987)

1.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강제수용소

> "그제야 우리는 우리의 언어에 이 모욕, 이와 같은 인간의 몰락을 표현할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우리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우리 것은 이제 아무 것도 없다. 그들은 우리의 옷, 신발,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빼앗아갔다." (Primo Levi, Survival in Auschwitz and the Reawakening, 22)

홀로코스트 생존자 프리모 레비는 자기가 처음 목격한 강제수용소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경험했으나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인식할 마음은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평생 고심했던 이 이탈리아 출신의 유대인 지성은 그래서 통상의 전달방식을 포기하고, 비네트(vignette)적 묘사를 택했다.

레비가 전하는 수용소 경험의 시작은 무자비한 박탈이었다. 수감자들은 트렁크 하나에 눌러 담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겼다. 바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린을 뺏겼고, 어린 소녀는 가슴에 품고 있던 곰 인형을 뺏겼다. 이어서 사람들은 몸의 일부, 곧 모든 종류의 털을 뺏겼다. 그 대가로 사람들이 얻은 것은 줄무늬 옷과 팔목의 푸른 문신이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불렸다.

전기가 흐르는 가시철조망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인간의 형상을 상실했다.

또 다른 생존자 엘리 위젤(Eli Wiesel)은 그의 대표작 <밤 *Night*>에서 나락에 처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한다.

"빵 한 조각이 우리 화차에도 떨어졌다. … 나와 멀지 않은 곳에, 한 노인이 네 발로 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 노인은 재빠른 동작으로 빵을 꺼내 한 입에 먹었다. … 그림자가 이내 노인을 덮쳤다. 노인은 바닥에 나뒹군 채 그림자로부터 주먹세례를 받으며 비명을 질렀다. '마이어, 마이어, 내 아들아! 나를 몰라보겠니? 난 네 애비다.' … 아들은 아버지의 몸을 뒤져 빵을 찾아내서는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들 역시 멀리가지 못했다. … 사람들이 모두 물러갔을 때, 내 옆에는 2구의 시체가 누워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었다. 그 때, 내 나이 열다섯이었다."(Eli Wiesel, 126-127)

아우슈비츠에서 수감자들의 지상 목표는 오로지 살아남는 것이었다. 교화나 노동이 아닌 절멸을 위해 만들어진 절멸수용소(Vernichtungslager)에서 살아남으려면 인간이기를 고집하지 말아야 했다. 정직, 신의, 타인에 대한 배려, 도의, 양심은 생존의 덕목과 양립하기 힘들었다.

수감자들 중에서 카포(Kapo)로 불리던 막사(barrack)의 조장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린 상황에서도 동료 수감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집요하게 괴롭혔던 점에서 더욱 더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용소에서 권력의 위계서열 최 하단에 있었던 그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그만큼 더 야비하고 잔혹하게 굴어야 했다. 이렇게 강요된 폭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최소한의 이유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불가피성을 잃어갔고, 제 3자가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국한되지도 않았다. 그들은 채석장 같은 혹사의 현장에 보낼 사람들을 선별하는 악역을 수행하면서, 또는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자살할 때까지 집요하게 괴롭히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질서를 유지하는 대가로 그들이 받는 보상은 기껏해야 담배 몇 개에 불과했지만, 몇 개비의 담배로 상징되는 그들의 힘은 수감자들이 볼 때 생사여탈권을 포함한 엄청난 권력이었다.

나치 권력의 위계서열에서 보면 최 하단 지대에 있었지만, 일반 수감자나 카포의 입장에서는 왕과도 같았던 사람들이 수용소 간수들이다. 1959년 트레블링카 재판과 1963년 아우슈비츠 재판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이들은 잔혹한 행적과 모순되어 보이는 평범하고 선량한 얼굴 때문에 사람들을 더 놀라게 만들었다. 가학이 일상화된 일부 간수들은 '시지푸스 게임'을 강요했다. 게임은 선택된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이 목숨을 잃어야 끝이 났다. 때로는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도 간수들에 의해 결국에는 살해당했다. 사람을 죽인 놈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수용소는 결국 아수라장 같은 곳이었다. 양심과 이성을 인간성의 두 얼굴로 지칭할 수 있다면, 양심은 파괴되거나 유보되고, 생존을 위한 잔꾀와 전략으로 축소된 이성만이 맹렬하게 활동하던 곳이었다. 수감자들에게 손찌검 한 번 하지 않은 수용소 소장들도 있었지만, 아수라장과 질서가 공존하는 시스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의 유일한 도피처는 꿈이었다. 그러나 그 도피처도 대부분은 가위눌림이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생존자 빅토르 프랑클(Victor Frankl)은 아우슈비츠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악몽에 시달리던 침상의 동료를 깨우고자 했을 때, 또 다른 동료가 했던 말을 우리에게 증언해준다. "그냥 놔둬. 아무리 악몽이라고 해도, 지금 여기보다는 낫지 않겠어?"(Viktor Frankl, 삶의 의미를 찾아서)

1945년 1월 소련군에 의해 해방된 마지막 생존자들 가운데 3분의 1은 탈진된 상태에서 추가로 목숨을 잃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터널을 간신히 통과한 이들은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연합군이 마련한 난민수용소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낸 후 1948년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출발하였다.

2. 강제 수용소 이후 : 트라우마의 세계

"우리의 몸은 수용소를 떠났다. 그러나 수용소는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1948년 난민수용소를 떠난 후에도 강제수용소 생존자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프리모 레비이다. 유대계 이탈리아 과학자로서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했고, 불굴의 의지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으며,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평생 역설했던 그가 자살했을 때,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대단히 컸다.

엘리 위젤은 그의 자전적 소설 <낮>에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존자의 고통을 이렇게 말한다.

> “나는 햄버거를 한 조각 잘라 입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피 냄새를 맡는 순간 이내 위장이 뒤틀려왔다. 금방 토할 것만 같았다. 언젠가, 한 남자가 빵도 없이 고기조각을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 때 나는 허기진 채로 그 사람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이 … 고기 한 조각쯤은 던져줄 지도 모른다고 은근히 기대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끝내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다음날, 그 사람은 막사 동료들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 사람은 인육을 먹었던 것이다. 그는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 이렇게 변명하며 발버둥 쳤다. ‘왜들 이래! 난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있었다고.’ ”

데이트 중이었던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연인과 뉴욕 한복판의 길을 건너다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살을 시도한다. 과잉 연상. 무력감. 불안. 행동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PTSD)를 특징짓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 소설 속 주인공에게서 보인다. 인물은 가공되었고, 스토리는 다듬어졌지만, 생존자들이나 생존자들의 고단한 삶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소설이 평균적인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역정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트라우마에 주목했던 최초의 전문가들 가운데 한 사람인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트라우마가 소중한 것의 상실 경험과 직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궁극적인 길은 소중한 존재의 부재(不在)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 과정이 지극히 고통스럽기에 우리 내면에서 억압의 기제가 발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실을 인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기억을 통해 과거의 사건과 대면하는 지난한 가공(Aufarbeiten)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인정과 배려, 주변 사람들의 세심한 도움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1950년대 말까지 독일은 물론 이스라엘과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입을 열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분위기나 제도적 조건의 부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용소를 떠난 이후 생존자들의 심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로렌스 랭거(Lawrence L. Langer)는 예일 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인터뷰 비디오들을 검토한 후 <Holocaust Testimonies>에서 생존자들의 기억의 특징을 고통, 굴욕, 더럽힘, 겁 등으로 정리했다. 실제로 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용소 경험을 떠올릴 때 그들을 사로잡는 감정은 분노와 살의, 슬픔과 공포, 자괴감과 배신감 등이었다. 수용소 수감 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들이 겪었던 경험과 마찬가지로 기억과 감정도 복합적이었다. 어린 딸이 ‘왼쪽!’이라는 친위대 장교의 명령과 동시에 죽음의 길로 끌려갈 때 우크라이나 출신 민병대의 곤봉과 채찍 위협 속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기억은 슬픔과 공포, 그리고 자괴감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자식 잃은 부모의 상실감에 휩싸인 이런 기억이 전후 유대인 사회에서 엄청난 베이비붐을 유발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보상심리와 결부되어 수많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어쩌면 기이해보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으로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의식은 상쇄될 수 없었고, 새로 얻은 아이에게도 침묵과 돌발행동, 폭력과 욕설 속에 트라우마가 전이되었다는 보고는 흔하다.

좌절감과 두려움이 워낙 강했던 탓에 자서전을 남긴 생존자들조차 과거의 회상할 때 조각

난 기억들밖에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는 숨어 지냈다. 한 집시여인의 기억 Wir leben im Verborgen. Erinnerungen einer Rom-Zigeunerin>의 저자 세이자 스토이카(Ceija Stoka)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친위대 대원들에 관해 기억할 때 '엄청 컸다', '말랐다', '번쩍이는 긴 장화구두'라는 세 마디 말밖에 하지 못했다. 번쩍이는 가죽구두는 수용소를 떠난 지 40년이 넘은 후에도 그녀에게 언제나 상상할 수 없는 공포심을 갖게 만들었다. 어눌해도 과거의 기억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큰 두려움과 패배감, 분노와 슬픔은 과거를 회상할 때 언어적 표현을 허락하지 않고, 표현되지 못한 기억은 여러 가지 감정과 뒤엉킨 채 심층에 침전되어 고통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존자들에게 인터뷰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는 과거에 관한 증언일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과거와 대면하고 가공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인터뷰는 생존자들에게 치유의 기회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1982년에 설립된 예일 대학교의 the Fortunoff Video Archive for Holocaust Testimonies는 생존자들의 인터뷰 작업에 힘을 쏟았고, 그 결과 7년 후인 1989년에는 이미 1400건 이상의 비디오 필름을 확보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쾌척한 1억 달러를 기금으로 삼아 1994년에 만들어진 쇼아 생존자 영상역사재단(Survivors of the Shoah Visual History Foundation) 재단도 바로 이러한 선례를 따라 만들어졌다. 이 재단은 설립 후 5년 만에 52,000건에 육박하는 인터뷰 영상을 제작했다.

3.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왜 아우슈비츠를 기억해야할까?

> "아버지는 울었다.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울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말 한 마디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Elie Wiesel, 밤, 30)

> "나는 결코 그 고요하고 푸른 하늘 아래 똘똘 감긴 연기의 소용돌이로 변해버린 어린이들의 작은 얼굴과 몸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결코 나의 신앙을 소멸시켜버린 그 불길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 나는 결코 나의 하느님과 나의 영혼을 살해하고 나의 꿈을 먼지로 만들어버린 그 순간들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Elie Wiesel, 밤, 48)

앞의 글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상황에 대한 한 유대인 소년의 기억이고, 뒤의 글은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그 소년에게 일어난 내면적 결과이다. 소년은 어처구니없는 대량 학살의 장면을 목격한 후 호흡처럼 간직해왔던 유대교 신앙을 버렸다.

슬픔은 우리의 삶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슬퍼하는 동기가 다르듯, 슬퍼하는 시간의 길이와 깊이도 다를 수 있다. 슬픔에는 상실에 대한 예감이나 상실의 경험이 선행하거나 동반한다. 잠시 후면 무릎 꿇은 채 정수리 부분으로 총알을 받아내야 하는 아버지는 자기와 가족에게 닥칠 운명을 생각하며, 뒤엉킨 감정에 사로잡힌다. 사람들은 수많은 유대인이 겪었던 이 순간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에 비유한다. 모든 상황을 예감하면서도, 엄청난 두려움에 압도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옥 문턱의 상황. 그 때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의 심경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죽음의 공포를 체험하고 살육의 현장을 목격한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후 삶의 근원이자 목적으로 찬미해왔던 신을 부인하고 저주했다.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들의 슬픔은 바로 그런 류의 슬픔이었다. 어처구니없는 부조리,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 가해자의 얼굴에 비친 야릇한 미소, 살해당하는 자의 눈에서 나오는 푸른 빛, 간절한 기도, 응답 없는 신, 언제나 함께할 것 같았던 가족의 부재, 어둠의 승리. 이런 못 견딜 경험이 '홀로코스트 신학'의 탄생을 가져왔다는 것으로 생존자들의 슬픔의 정도를 암시할 수 있을까?

살아남은 자들의 트라우마에는 죽은 자들의 비애가 드리워있다. 요행히 구조된 자들의 증언은 불행하게 죽은 가족과 동료의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이다. <익사한 자와 구조된 자>에서 프리모 레비는 세상에서는 결함으로 일컬어지는 음흉함과 잔인함이 수용소 수감자들에게는 삶의 비결이 되었다고 고통스럽게 회고한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결함들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 그런 결함들 **덕분에** 살아간다."(프리모 레비, 이것이 인간인가, 149)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 더욱이 이런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기는 할까?

우리는 경험 없이도 그 경험을 한 사람의 심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아주 어린 소녀가 성폭력 당한 후 살해된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안타까움과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뉴스 화면에 비친 부모의 모습을 보며 내가 그 일을 겪은 것처럼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낀다. 어른이 아이의, 남자가 여자의, 미혼자가 자식 둔 부모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신기하다. 조각 경험들이 연합을 이루듯, 감정의 편린들도 연합을 이루는 것일까?

홀로코스트와 같은 집단학살 경험에 이르면 상황은 다소 달라진다. 희생자나 생존자가 처했던 상황이 너무 극악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따로 의도라고 할 것도 없이 유희적인 살인들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희생자 중 일부가 그 유희적 살인에 적극 협력하기도 했다는 점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 동일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뒤엉켜 있었던 아우슈비츠에서는 선악의 구도나 가해자-희생자의 구도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생존자들의 트라우마 가운데 상당부분도 이렇게 뒤엉킨 상황과 관련 있다. 실타래처럼 뒤엉킨 상황은 실타래 이상으로 착종된 기억을 유발시켰고, 헝클어진 기억의 조각들은 질서 없이 엉겨 붙어 견딜 수 없는 불편한 감정들을 초래했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제시했던 트라우마 개념만 가지고 생존자들의 의식/무의식 세계에 접근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일차대전 참전 군인들의 끔찍한 전장경험 이해해서 출발한 프로이트의 개념은 난맥처럼 뒤얽힌 탈인간적 상황에서 유발된 부담스러운 기억을 극복하도록 돕는 데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그의 트라우마 개념은 이러한 상황의 복합성을 고려하면서 집단적 차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지 않은 아우슈비츠를 이해할 수 있을까? 체험했던 사람들도 말문이 막혀 입을 떼지 못하는 그곳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도 다중 동일시, 혹은 3중의 동일시 과정을 통해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상황에 대한 구조적 이해에 기초하여 희생자에 대한 내면적 동일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아우슈비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소녀의 유품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독일 할머니의 모습은 인간의 정을 느끼게 하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 적어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둘째, 가해자와의 동일시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관리자들이나, 수용소 시스템을 구축한 하인리히 힘러 같은 인물은 악마가 아니었다. 힘러는 학살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는 심하게 구토하면서 '인간다운' 방법을 강구하라고 명령했던, 비위 약한 인간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 '만일 내가 그때 그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자문해보면, 가해자와 나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방관자/방조자와의 동일시가 필요하다. 나치 치하에서 저항하다 목숨을 잃었던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목사는 '어떻게 목사로서 암살 음모에 가담할 생각을 했느냐?'는 힐난에, 미친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놀라 손가락질 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유리창 커튼 뒤에서의 관찰, 안타까워하는 마음, 소곤거리는 비판, 비난의 손가락질이 무용한 순간에 바로 그런 행동으로 일관했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나치 치하 독일인들의 상황에 우리 자신을 대입해보면, '얼마든지 나도 그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공감에 바탕을 둔 동일화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희생자들의 경험과 생존자들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해준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런 동일화 작업이 그 사건과 무관한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거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가계상으로 무관하고 직접적인 이해연관도 없는 후세대에게 홀로코스트나 유사 사건들을 가르치는 이유를 어떻게 말해야할까?

여기에서 프로이트가 제시한 트라우마 개념을 확대 원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홀로코스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집단 차원에서 보면, 홀로코스트는 우리 인간이 포기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을 상실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해주는 예표이다. 그 소중한 것이란, 바로 인간성이다. 가해자 집단인 독일인들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독일인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운 좋게 빨리 죽지 않는 한, 그 누구라도 타인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생존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고통이 되었던 형국이 홀로코스트의 비극이다. 요행히 움츠리고 살았더라도,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십상인 것이 홀로코스트가 강요한 구조적 상황이다. 사건 자체로 보면 독일인과 유대인 간의 비극으로만 보이는 홀로코스트에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홀로코스트가 인류의 트라우마인 것은 인간성의 상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만 보면, 5·18 경험의 의미도 홀로코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